

요양병원 확진자 타 지역 이송...요양시설 전담병원 지정

광주, 병상 포화...세종·대전·경북 김천의료원 등 전원 조치
전남, 취약시설 전수검사 성과...‘열방센터’ 감염고리 발견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시·도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요양병원 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증환자 전담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방역당국은 처음으로 중양사고 수습본부(중수본)가 확보한 병상으로 요양병원 관련 확진 환자를 이송하는 한편, 음성 환자에 대한 타 요양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확진자를 찾아내는 성과를 냈다.

광주시는 4일 “광주 효정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를 이송할 병상을 확보하고 후송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효정요양병원 확진자 중 입원환자는 모두 53명이다.

이들 중 13명은 조선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강진의료원 등 3곳으로 이송

됐으며 12명은 호남권 전담 병원인 빛고을전남대병원, 강진의료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등 시가 확보한 25병상에서 치료 받는다.

나머지 환자들은 중수본이 확보한 전국 권역 전담 병원의 28병상으로 옮겨진다. 세종 충남대병원, 대전 보훈병원, 충남 천안 의료원, 철곡 경북대병원, 경북 김천의료원, 경북 영주직접사병원 등 전국 권역의 전담 병원으로 후송된다.

음성으로 분류된 입원 환자들은 타 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되며 3일에 한 번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한다.

요양병원발 확산세에 따라 시는 북구 일곡동 소재의 해아림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하고 오는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곳에는 30병상이 마련되며 81명의 인력(의사 3·간호사 15·조무사 등 63)이 꾸려진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



코로나19 극복 ‘희망 충전’ 새해 공식 업무 첫날인 4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희망 충전 중’이라는 문구의 스티커를 서로 붙여 주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북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 충전 중’ 등의 문구를 의료진 방호복과 선별진료소 곳곳에 부착했다.

용자를 대상으로 벌인 2차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자 2명을 발견했다.

지난 2차 전수검사는 전남지역 감염취약시설 1천425개소(노인요양시설 1천15

8, 장애인이용시설 158, 요양병원 88, 정신보건시설 21)에서 근무 중인 종사자

및 이용자 4만2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확진자 2명은 순천시와 광양시에 소재한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조기에 발견돼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하지만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24명의 확진자를 찾아내는 성과를 보였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최근 경북 상주BTJ열방센터 방문자의 진단검사 실시 및 열방센터 지부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해 확산 차단에 나섰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5일까지 검사를 마쳐야 하며, 전남도내 BTJ 열방센터 지부(목포·여수·순천·광양)는 이달 말까지 선교활동 등 집합이 금지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광주 소재 요양병원의 집단환자 발생으로 전남도는 고위험시설의 선제적인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검사 간격을 2주에서 1주간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국적인 코로나 유행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고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겨울·임후성기자

‘전남 블루이코노미’ 국비 대거 확보 탄력

121건 1조6천898억...디지털·그린 뉴딜 선도

전남도가 핵심사업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 올해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천년 비전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로드맵 및 추가 발굴된 100대 사업과 관련해 전남도가 올해 확보한 국비 예산은 121건 1조6천898억원으로 지난해 79건 1조2천285억원보다 4천613억원(37.5%) 늘었다.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는 2019년 7월 전남도가 발표한 새천년 비전으로 전남의 높은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가진 에너지·관광·바이오·미래운송기기·농수산·스마트시티 등 6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6대 프로젝트별 국비 확보 사업으로 에너지 분야에선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남도가 그린뉴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113억원) 및 저압 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기반(20억원) 구축, 지능형 LVDC(저압직류) 핵심기술 개발(84억원) 등 23개 사업 896억원이 확보됐다.

관광 분야로는 한국정원문화원(16억원)과 국립현대미술관 진도분관(2억원),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박물관관(9억원) 건립과 흑산공항 건설(69억원),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관 조사·연구(40억원) 등 33개 사업에 1조1천733억원을 투입, 남해안권 관광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감염·난치병 질환 치료 중심의 스마트 의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립심뇌혈관센터(44억원) 및 화순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10억원) 설립, 첨단 정밀의료 산업과 플랫폼(50억원),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 구축(60억원) 등 18개 사업에 570억원이 투입된다.

미래운송기기와 관련, LNG 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센터 구축(20억원),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60억원), e-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41억원) 등 25개 사업에 829억원을 지원해 그린에너지 기반 미래 운송기기 산업을 차질없이 육성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 생명산업을 위해 농수산 분야 사업으로는 어촌뉴딜

300(1천594억원),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90억원), 수출전략형 김 가공산업 육성(11억원), 스마트팜 빅데이터센터(20억원) 등 21개 사업 2천519억원이 확보됐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분야 사업인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351억원) 등을 통해 새로운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전남도는 ‘블루 이코노미 100대 과제 로드맵’을 바탕으로 비전 수립 3년 차인 올해 블루 이코노미 핵심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판 뉴딜’과 전남의 ‘블루이코노미’가 경제구조의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동일한 목표로 설정,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장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블루이코노미 100대 과제 로드맵과 최근 발표한 블루 이코노미 기반 전남형 뉴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자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며 “전남도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해 더 세롭고, 더 청정하고, 더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2월말부터 백신 접종 시작...접종명단 파악 중”

고위험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거주 고령층부터 접종

방역당국이 국내에 도입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다음달 말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선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위와 우선 접종 대상에 대해 “2월 말부터 아마 고위험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해 명단 파악과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은 의료기관별로 접종을 진행하고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방문 접종 형태로 접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백신 접종 우선순위 결정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 번째 목표는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에서의 사망이나 중증(진행)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장 치명률이 높은 집단생활 어르신, 만성질환자가 우선순위로 의

료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 종사자에게 먼저 접종하는 것은 유럽, 미국 등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접종 대상자, 접종기관, 실시 기준, 이상반응 관리체계 등 세부적인 접종 계획안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2월 말부터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를 시작으로 접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인 11월 이전에는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으로 지정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범부처 협업 기구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8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예방접종관리반, 상황총괄반, 자원관리반, 피해보상심사반, 전문가위원회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와 1천만명분, 안센과 600만명분, 화이자와 1천만명분, 모더나와 2천만명분의 공급계약을 모두 체결했고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서 1천만명분을 공급받기로 하는 등 총 5천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5천600만명분은 국내 인구의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는데 충분한 물량이다. /연합뉴스

▶1면 ‘광주·전남 현안...’서 계속

이에 대해 광주시는 “발전소 건설 인허가권자는 나주시”라며 “제3자인 광주시에 책임을 떠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당사자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존 5개 주체와 함께 환경부, 광주시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도 올해 신년사를 통해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고 시민의 뜻과 이해 당사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 **광주매일신문**

▶광고/☎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배금 (761229-*****)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0노단503 상속한정승인

○공 고 안: 김병성

○한정승인수리일: 2020년 12월 28일

○공고기간: 2021년 1월 5일 ~ 2021년 3월 5일

○연 락 처: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29, 203동 702호 (영암삼호퀵스빌2차아파트) (010-4669-7473)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임태인 (531105-*****)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0노단10178 상속한정승인

○공 고 안: 임정엽, 임영지

○한정승인수리일: 2020년 12월 28일

○공고기간: 2021년 1월 5일 ~ 2021년 3월 5일

○연 락 처: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483번길 12-1 (양정동) (010-9237-0554)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형진 (690317-*****)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0노단1272 특별상속한정승인

○공 고 안: 문옥원, 김예지, 김단지, 김상원

○한정승인수리일: 2020년 12월 28일

○공고기간: 2021년 1월 5일 ~ 2021년 3월 5일

○연 락 처: 대구 동구 신암남로30길 6, 305호 (신암동, 청송빌) (010-5423-7987)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 대 ▪ A/S

T.375-5880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스 상담◀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